

釜山의 地方史 研究現況

洪 淵 津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1. 머 리 말
 2. 연구활동현황
 - 1) 부산시
 - 2) 부산지역 각 대학
 3. 부산관계 자료의 간행현황
 4. 맺 음 말
- (부록) 부산시 각 구지 발간현황

1. 머 리 말

최근 지방사가 역사연구의 전면(前面)에 부각하면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광복후 우리나라의 지방사연구(地方史研究)는 전근대적(前近代的) 연구의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주로 향토의 학자를 중심으로 많은 한계성을 띠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몇가지 이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전문적인 지방사연구자의 부족, 지역(지방)관계자료의 영세함, 지방사에 대한 인식의 결여, 전대(前代)의 역사적 배경 및 역사연구 시각의 편협성 등에 크게 제약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의 포괄적·종합적 연구를 위해서는 지방사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며 위에서 제시한 몇가지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역사인식의 전환과 이에 따른 지방사연구의 새로운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는 지방사가 역사연구를 좀더 포괄적·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에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방사연구가 가장 선진적·선구적 형태로 진행되어 있는 나라로 프랑스를 손꼽는다. 그 이유는 프랑스 지방사연구의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는 16세기 말까지만 하여도 귀족가문들의 족보나 봉건영주들의 성(城)·봉토(封土), 수도원(修道院), 교회 등의 목록이거나 도시의 특허장(charters)·특권 등의 목록, 명사록 등이 일반적이었다.

17세기 이후의 지방사연구는 지방(province)의 유력기관이었던 삼부회(三部會)와 고등법원들이 그 특권적인 우월감에서 그들 기관의 역사를 편찬하였다. 프랑스에서 지방사연구의 황금기는 19세기로 접어들면서이다. 18세기 후반이후 프랑스의 각 지방에 학술적인 지방문화 단체들이 생겨나 성장하게 된 것에서 연유한다. 대체로 이들 단체들의 회원은 전형적인 부르조아지사의회의 기본 구성원(관료, 공증인, 교원, 금리생활

자, 지방귀족 등)들이었다. 이들 지방의 비전문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 지방에 대한 연구논문과 저서를 간행하면서 양적인 확대를 가져왔고 여기서 지방사연구는 하나의 성장을 보게된다.¹⁾ 이시기 지방사연구자들의 연구 가운데는 비전문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연구물 속에는 많은 과장과 오류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전문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해 비판과 경멸을 받았지만 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사연구의 가치는 좀처럼 손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역사연구는 독창적인 논제(論題)나 해석이라도 정확한 사실(事實)에 의해 뒷받침 될때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역사학자들이 지방의 구체적 사실들로 자기의 논제와 해석의 근거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양의 지방사연구가 단순한 향토사적 시각에서 벗어나 본 궤도에 올라 성장하게 된 것은 20세기 이후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축적된 연구성과들은 새롭게 재구성되어 종래의 확설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역사연구의 한 방법론으로 자리잡아 그 연구의 영역과 깊이를 더하여 가고 있다.²⁾ 물론 동양사회에서도 지방사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많은 제약을 받았고, 특히 우리의 경우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발전보다는 제약과 단절 속에서 근대적 역사연구의 방향으로 승화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대체로 지방사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 동·서양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한자문화권)의 경우 지방사와 향토사(鄕土史)라는 용어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면서도 그 의미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즉 향토사란 연구자의 선조(先祖)가 대대(代代)로 살아온 자기고장의 역사에 대한 애향적 태도가 연구의 저변에 깔려 주관적인 연구로 흐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방사란 연구자의 출신에 관계없이 연구됨으로 지나친 애

1) 노명식, <지방사 연구의 역사와 개항> 《대구사학》 제30집 1986. pp. 4~5

2) 노명식, <앞의 논문> pp. 7~16

향적·주관적 시각이 배제된 일정지역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객관적 연구라는 의미가 짙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을 염두에 두고 현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의 지방사연구의 주요기관(부산시, 부산지역 각 대학 연구소 및 박물관 등; 개인연구자와 향토학자 제외)과 부산관계 전근대(前近代) 문헌자료의 간행현황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부산의 지방사연구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연구활동현황

부산의 지방사 연구활동은 주로 부산지역의 몇몇 향토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대체로 저조한 상태로 머물다가, 근년에 접어들면서 부산 지역 각 대학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부산의 지방사 연구활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부산시

부산시의 지방사연구는 주로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이하 '시사편찬회'라 약함)의 문헌학적인 연구와 부산직할시립박물관(이하 '시립박물관'이라 약함)의 고고학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시사편찬회는 부산의 역사 전반에 관한 저술 간행과 부산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보존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물론 당대사(當代史)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보존 등을 활동의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196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본 위원회는 1975~1988년 초까지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88년 11월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간의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근대(前近代)의 부산 관계 자료를 발굴·간행하여 부산 역사연구의 기본자료를 보급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동래부사례(東萊府事例)》(1963. 부산사료총서 제1집) 《접대왜인사례(接待倭人事例)》(1963. 제2집) 《동래부계록(상)(東萊府啓錄 上)》(1964. 제3집) 등이다. 둘째는 부산 역사의 연구논문집인 《항도부산(港都釜山)》 제1호(1962)~제7호(1969)를 발행하여 부산의 역사연구는 물론 자료의 발굴 소개에 노력하였다. 세째는 부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요약·정리한 《부산약사(釜山略史)》(1965)와 부산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부산시지(釜山市誌)》 상·하(上·下)를 계획하였으나 상(上)권만을 간행하고 하(下)권은 발간을 보지 못한 채 본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부산시의 지역에 대한 연구는 위축되었다.

그 후 1988년 11월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시사편찬회는 그 첫번째 연구활동으로 부산의 역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 간행하여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여 《부산시사(釜山市史)》 제1권을 1989년 12월에 간행하였고 이어서 제2권을 1990년 12월, 제3권을 1991년 3월, 제4권을 1991년 6월에 발간하여 부산의 역사연구에 과제로 남아 있던 부산 역사와 체계적인 정리를 현 시점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와 같은 기본작업을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부산 역사의 종합적인 연구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자료의 발굴·간행, 부산 역사연구지의 발간, 당대사(當代史) 자료의 체계적 정리·보존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사연구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사편찬회가 부산의 문헌학적인 연구에 주력한다면 시립박물관은 고고학적인 연구를 기본으로 금석문 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선사문화 복원과 지역문화 보급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1978년 개관한 본 박물관은 부족한 전문연구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구·보급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부산지역 선사문화에 대한 조사활동을 보면, 덕천동 고분군의 발굴조사(1981. 1. 27~4. 20)를 시작으로 노포동 고

분군 1·2차 발굴조사(1984. 12. 28~1985. 11. 24, 1985. 10. 21~1986. 1. 20) 두구동 임석유적 발굴조사(1987. 9. 10~1987. 11. 13), 복천동 고분군 발굴조사 및 내성유적 발굴조사(1989. 9. 2~10. 19), 강서구 생곡동 고분군 발굴조사(1989. 12. 18~1990. 2. 16), 북구 만덕사지 발굴조사(1990. 10. 18~12. 1)를 통한 부산지역 선사문화에 대한 발굴보고서로 《부산 덕천동 고분군》(1983), 《부산 노포동 고분군》(1985), 《부산 노포동 유적》II(1988), 《동래 복천동 내성유적》(1990), 《부산 두구동 임석유적》(1991) 등을 간행하였다.

이상의 발굴조사활동 이외에도 부산지역의 금석문과 유물·유적에 대한 연구를 각종 학술지 및 본 박물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보》(제1집(1979)~제17집(1990))를 통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또 박물관 보급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박물관 강좌 개최 및 교재 발간, 박물관 학교 후원, 동우회 조직을 활성화 하고 학술교류((한·일학술심포지움(1978), 한일고대문화전 출품(일본 1980, 1983), 실크로드 대문명전(일본, 1988)))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사편찬회와 시립박물관의 전문적인 부산의 역사에 관한 연구활동과 함께 부산시는 부산의 역사에 대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장(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자 소책자들의 간행을 꾸준히 진행하여 《부산의 역사》(문화재계, 1966), 《부산의 문화재》(문화재계, 1977·1982증보), 《내고장 전통가꾸기》(문화재계, 1982)등의 활동과 학계와 연계하여 지방사 관계 자료를 조사 연구한 《경상좌수영지》(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0)를 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산지방의 역사연구에 노력하여 지방사연구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2) 부산 지역 각 대학

부산지역의 각 대학은 최근 들어서 자체의 전문인력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부산 역사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5~6개 대학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표면화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부산 지역 각 대학의 연구소와 박물관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소개한다.(전공학과와 개별 연구자는 제외)

경성대학교는 본 대학 부설 향토문화연구소(1982년 개소)를 중심으로 부산·경남권의 지역문화의 배경을 조사·연구하여 이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소에서 간행한 자료집은 부산·경남권의 역사 연구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10년 이전까지의 부산의 금석문을 조사하여 국역·편찬한 《부산시 금석문(釜山市金石文)》(향토자료총서 1, 1984), 부산·경남지역 29개 향교를 중심으로 그 기문(記文)을 조사·국역한 《부산경남향교기문(釜山慶南鄕校記文)》(향토자료총서 2, 1986), 조선후기 동래지역 향반(鄕班)들의 실상을 기록한 《동래향청·향교고왕록(東萊鄕廳·鄕校考往錄)》(향토자료총서 3, 1989) 등 지역의 중요한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동 대학교의 박물관은 1971년 동 대학의 전신인 한성여자대학 박물관으로 개관, 1988년 경성대학교 박물관으로 개칭 한 뒤 왕성한 활동을 보이면서 가야문화권 역사의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본 박물관의 학술조사활동을 보면 괴정동 고분군 발굴조사(1975. 8~10) 김해 칠산동 고분군 1·2차 발굴조사(1987. 8. 10~10, 1988. 4~8) 연산동 고분군 발굴조사(1987. 12~1988. 1) 경남 의창군 진동면 인곡리유적 발굴조사(1989. 3~4) 가야문화권(밀양시, 밀양군)유적 정밀지표조사(1989. 8~11) 김해 대성동 고분군 1·2차 학술조사(1990. 6~8, 1990. 9~1991. 4)등을 통하여 《김해 칠산동 고분군 I(유적조사보고 제1집, 1989)》《가야문화권 유적 정밀조사보고서》(밀양시, 밀양군, 1989) 《의창 교동리 분묘》(1991) 등과 그 외의 조사는 전문학술지에 약식으로 소개 하였다.

부산대학교는 부산·경남문화권을 중심으로 한국학 전반에 대한 전

통문화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주력하는 한국문화연구소(1987 개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동 연구소에서는 첫번째 사업으로 밀양지역의 역사·문헌자료·구비문학(口碑文學) 표충사 소장자료 등을 종합학술조사하여 《한국문화연구》 창간호(1988년)의 발간을 시작으로, 함안(咸安) 지역을 종합학술조사한 《한국문화연구》2(1989년), 진양, 사천지역을 종합학술조사한 《한국문화연구》3(1990년)에 이어서 현재 동래지역을 종합학술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조사·연구활동과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자료발굴에도 관심을 가져 《경상도 언양현 호적대장》(상·하, 1988년)과 《단계집》(1989년), 《경남 양산군 지방사회사 자료집》(1991)을 간행·보급하는 등 지방사연구의 새로운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동 대학교 박물관은 1964년 개관한 이래 부산·경남지역 선사문화 연구에 특히 주력하고 있다. 그 주된 학술조사 활동은 김해 농소리 패총 학술조사(1964년 9월)를 시작으로 하여 부산 다대포 패총 발굴(1966. 8), 경남 마산 성산 패총 발굴(1968. 8~9), 부산 오륜대 고분군 발굴(1971. 12), 경남 김해지방 종합학술조사(1971~1972. 2), 부산 화명동 고분군 발굴(1972. 12), 부산 금곡동 울리 패총 발굴(1972. 12~1973. 1), 경주 미추왕릉 고분군 1·2차 발굴(1973. 12~1974. 1), 부산 복천동 학소대 고분군 발굴(1974. 9~10), 김해 내동 지석묘 발굴(1976. 1), 김해 예안리 고분군 1~4차 발굴(1976~1980), 부산시 문화재 지표조사(1977. 7~12), 김해 수가리 패총 1·2차 발굴(1978-1979), 경남 함양 백천리 고분군 발굴(1980. 3~5),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 1~4차 발굴(1980. 10~1981. 2, 1986. 6, 1989. 9~10, 1991. 7~10), 부산 당감동 고분군 발굴(1981. 10~11), 가야문화권(김해군·밀양군) 지표조사(1981. 6~12), 가야문화권(삼천포시·사천군) 지표조사(1982. 5-8), 경남 울주군 화산리 고분군 발굴(1982. 10-12), 경남 울주군 양동 유적 발굴(1984. 4-5), 경남 합천댐 수몰지구 지표조사(1984. 3~1985. 2), 부산 망미동

고분군 발굴(1985. 3-4), 경남 삼천포시 늑도 유적 1·2차 발굴(1985. 10~11, 1986. 5~6), 부산 노포동 유적 발굴(1985. 10-12), 경남·합천군 저포리 E지구 발굴(1986. 11~1987. 8), 경남 울주군 검단리 주거지 발굴(1990. 3~4) 조사하는 등 부산·경남의 가야문화권에 대한 선사문화 복원에 집중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발굴조사는 《부산 오륜대 고분군》(1973), 《부산시 문화재 지표조사》(1977), 《부산 화명동 고분군》(1979), 《부산 금곡동 울리 패총》(1980), 《김해 수가리 패총》(1981), 《동래 복천동 고분군(I)》(1983), 《울주 화산리 고분군》(1983), 《부산 당감동 고분군》(1984), 《김해 예안리 고분군(I)》(1985), 《울주 양동 유적 조사 개보》(1985), 《함양 백천리 1호분》(1987), 《합천 저포리 E지구 유적》(1988), 《가야문화권(사천군)·하동군 유적》(1988), 《삼천포시 늑도 주거지 보고서》(1989), 《동래 복천동 고분군(II)》(도면·도판, 1990. 2), 《동래 복천동 고분군(III)》(본문, 1990. 12), 등으로 발간하여 한반도 남부의 선사문화 및 가야문화권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197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남해안 유적분포조사와 경남 일원의 야외조사활동으로 얻어진 고고학 자료 수집과 이의 정리는 본 박물관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며 1976년부터 4차에 걸쳐 발굴조사한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고인골(古人骨)은 동 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연구진 및 일본의 형질인류학자들과의 고고·형질인류학적인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며 그의 패총 출토의 동물유존체에 대한 공동연구가 일본 학자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편, 본 박물관은 일본의 구주(九州)대학과 부산·구주고고학 공동연구회를 발족시켜 매년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주체하여 한국과 일본의 선사문화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³⁾

3) 공동 연구회 개최 현장은 다음과 같다.

- 제1회(부산) : 1987. 7. 17~8. 22 제2회(구주) : 1988. 8. 7~8. 11
제3회(부산) : 1989. 7. 14~7. 18 제4회(구주) : 1990. 7. 14~7. 15
제5회(부산) : 1991. 7. 12~7. 16

부산여자대학은 부설 가야문화연구소(1985. 개소)를 두고 지역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지향하였으나 뚜렷한 활동이 없다가 최근 들어 실질적인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즉 낙동강 하구 유역을 중심으로 녹산지역 문화권을 학술조사한 《가야문화연구》1 (1990)과 《가야문화연구》2 (1991)을 내면서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다.

동 대학 박물관은 1982년 개관 이래로 부산·경남의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학술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활동을 보면 경남 산천군 중촌리 고분군 발굴조사(1982. 8~9), 경남 창원시 삼동동 옹관묘 발굴조사(1982. 11~12), 경남 거제군 일대 지표조사(1983. 7), 경남 김해시 일대 지표조사(1983. 9), 경남 합천댐 수몰지구 지표조사(1984. 5), 경남 거창군 임블리 천덕사지 발굴조사(1986. 10~1987. 7), 경남 합천군 계산리 고분군 발굴조사(1986. 10~12), 부산 연산동 4호분 발굴조사(1987. 11~1988. 2), 경남 거창군 임블리 선사유적 발굴조사(1988. 3~8), 경남 사천군 두량리 고분군 발굴조사(1989. 9~10) 등을 통하여 《창원 삼동동 봉관묘》(1984), 《거창 임블리 천덕사지 (부 합천 계산리 고분군)》(1987) 등과 〈부산 연산동 4호분 발굴조사보고〉(《부산여대사학》 제6·7합집, 1989), 〈임블리 선사주거지(I)〉(《영남고고학 6집》1990) 등을 통하여 가야문화의 복원에 노력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은 1966년 현재의 위치에 개관(1959년 중아도서관에 전시실 설치)한 이래 부산·경남지역의 선사문화 연구에 주력하여 동래 복천동 고분군(제1호~제10호) 발굴조사(1961~1971)를 시작으로 함양 상백리 고분군(1972), 진해동굴(1973), 고성 동의동 패총(1974), 고성 송천리 솔섬 석관묘(1974), 창령 계성 고분군(B·C 지구, 1976) 사천 예수리 고분군(1977), 통영 상노대도 패총(1978), 동래 읍성 망월산정 건물지(1979), 김해 부원동 유적(1980), 합천 삼가 고분군(1981), 가야문화권(고성)유적 지표조사(1981), 가야문화권(울주·울산·양산)유적 지표조사(1982), 양산 순지리 토성지(1982~1983) 가야문화권(남해·통영·충무)유적 지표조사(1983), 진해 구산성지(1983~1984), 울

주군 간월사지(1984), 합천군 영암사지(1984), 가야문화권(고성군)유적 정밀지표조사(1984), 합천댐 수몰지구 지표조사(1984), 울산 왜성(1985) 울산 병영성지(1985), 가야문화권(창령군)유적 정밀지표조사(1985), 합천댐 수몰지구 봉계리 고분군·창리 고분군(1985, 1986), 가야문화권(울산·울주·양산)유적 정밀지표조사(1987), 합천댐 수몰지구 봉계리 유적(I, II; 1987; 1988) 울주군 화산리성지 고분군(I, II; 1988, 1989), 의령군 석곡리 지식묘(1989), 양산 북정·신기리 고분군(1990), 거제 고현성지(1991)등 30여회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가야문화권의 선사문화 복원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술조사활동은 《동래 복천동 제1호 고분》(1972) 《고성송천리 술섬 석관묘》(1977) 《창령 계성고분군(B·C 지구)》(1977) 《사천 예수리 고분군》(1978) 《동래읍성 서장대 망월산정 건물지》(1979) 《김해 부원동유적》(1981) 《합천 삼가 고분군》(1982) 《통영 상노대도 패총》(1984) 《진해 구산성지》(1984) 《가야문화권(고성)유적》(1984) 《울주 간월사지》(1985) 《합천 영암사지》(1985) 《합천댐 수몰지구(대병)》 지표조사 보고서(1985) 《가야문화권(창령)유적》 정밀조사보고서(1985) 《울산왜성·병영성지》(1986) 《가야문화권(울주·울산·양산 유적)》 정밀조사 보고서(1986) 《합천댐 수몰지구 봉계리 고분군》(1986) 《합천댐 수몰지구 창리 고분군》(1987) 가야문화권(남해·통영)유적》 정밀조사보고서(1987) 《합천댐 수몰지구 봉계리유적》(1989) 《울주 화산리 성지(II I)》(1989) 등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 이외에도 고고역사학의 전문 연구지인 《고고역사학지》를 창간(1985)하여 지역문화 및 고고역사학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 또 각종 전시회에 소장유물을 출품하여 학술교류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의대학교 박물관은 1986년 문을 연 이후 부산·경남의 선사 및 가야문화 연구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 학술조사활동은 부산 반여동유적 1·2차 발굴조사(1986. 6~9, 1988. 11~12), 합천댐

수몰지구의 거창(대야, 무릉, 월평리)·합천 역평리유적 발굴조사(1986. 11~1987. 6), 창원 도계동 고분군 발굴조사(1987. 8~10), 거창 대야리 유적 발굴조사(1987. 11~12), 거창 대야·무릉리유적 (1988. 5~11), 김해 양동리 고분군(1990. 11~1991. 6) 등의 학술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학술조사활동을 통하여 《거창 합천 큰돌 무덤 보고서》(1987) 《대야리주거지(I) 보고서》(1988), 《대야리 주거지(II) 보고서》(1989), 《김해 내동 큰돌무덤 보고서》(《동의사학》4집, 1988) 등 그 연원에 비하면 비교적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동 대학 가야문화연구소는 1986년 영남지역의 가야문화권에 대한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연구활동과 연구 성과가 없는 극히 미진할 상태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부산수산대학교는 1984년 박물관이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통영군 상노대도 패총 1·2차 발굴조사(1988)를 통하여 《상동패총》(1989)을 보고서로 발간하였을 뿐 극히 미진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부산지역의 각 대학들은 자체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가야전문화 연구에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활동은 이전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방사연구의 깊이와 폭을 넓혀 새로운 모습의 지방사연구의 새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3. 부산 관계 자료의 간행현황

앞 절에서 부산지역 각 대학의 지방사 관련 연구소와 박물관의 연구 현황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문헌학의 연구보다 훨씬 활발하며 많다. 이는 자료의 영세함도 있겠으나 자료발굴에 대한 노력과 연구활동이 미흡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절에서는 부산관계 문헌자료의 영인 간행(1960년~1990년) 현황을 소개하면서 문헌학 방면의 연구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부산 관계 자료의 간행현황표

자 료 내 용			자료 수록(간행) 도서			
자 료 명	생산년도	저 자 (발행처)	도 서 명	저 자 (간행자)	발간년도	비 고
東萊府事例	1868	東萊府	釜山史料 叢書 ①	釜山市史 編纂委員會	1963.9	필사본을 活字로 옮김
接待倭人 事例	1637	禮曹	②	〃	〃	〃
東萊府啓綠 (上)	1849) 1893	備邊司	③	〃	1964.6	〃 9冊中5冊 (1849~ 1867.9)
東萊府使 先生案			港都釜山 第一號	釜山市史 編纂委員會	1962.	活字本
慶尙左水營 先生案序			〃	〃	〃	〃
多大浦 先生案序			〃	〃	〃	〃
影島僉使 先生案			〃	〃	〃	〃
金石文懸 板史料 ①			〃	〃	〃	〃
東萊府誌	1740	東萊府	〃	〃	〃	필사→활자
忠烈祠誌	1764	〃	〃	〃	〃	〃

자 료 내 용			자료 수록(간행) 도서			
자료명	생산년도	저 자 (발행처)	도 서 명	저 자 (간행자)	발간년도	비 고
慶尙南道廳 移轉關係資料	1924~ 1925		◇	◇	◇	
釜山港埋築 關係資料	1929	釜山府	◇	◇	◇	
釜山市先生案	1910 ┆ 1960	釜山市史 編纂委員會 (編)	港都釜山 第二號	釜山市史 編纂委員會	1962	活字本
慶尙左水營 先生案			◇	◇	◇	◇
金石文 및 懸板關係資料 (Ⅱ)			◇	◇	◇	◇
朝鮮王朝 實錄釜山 關係抄存 (Ⅰ)	1392.10 ~1436.12		◇	◇	◇	필사→활자
朝鮮王朝 實錄釜山 關係抄存 (Ⅱ)	1437 ~1465		港都釜山 第三號	釜山市史 編纂委員會	1963.2	◇
襄忠續後錄	1886	慶尙道 觀察使	◇ 第四號	◇	1964	◇
復戶錄卷	1608		◇	◇	◇	◇
朝鮮王朝 實錄釜山 關係抄存 (Ⅲ)	1466~ 1479		◇	◇	◇	◇

자 료 내 용			자료 수록(간행) 도서			
자료명	생산년도	저 자 (발행처)	도 서 명	저 자 (간행자)	발간년도	비 고
東萊府啓錄抄	1870 ~1872		港都釜山 第五號	釜山市史 編纂委員會	1966.9	필사→활자
日省錄抄	1864.3 ~1876.2		〃	〃	〃	〃
朝鮮事務 書目錄抄	1867~ 1874.9	釜山日本 領使館	〃	〃	〃	〃
備邊司 膽錄抄	1864~ 1876.2	備邊司	〃	〃	〃	〃
朝鮮歸好 餘錄抄	1878	石幡貞	〃	〃	〃	〃
開港直後의 貿易·商業 關係資料			港都釜山 第六號	釜山市史 編纂委員會	1967	
釜山近代 工業發達史 關係資料 解 說			〃	〃	〃	
在釜山日本 領使館內 慶尙道事情 〔釜山關係抄〕	1905	日本領使館	港都釜山 第七號	〃	1969	한글번역
絶影島租借 問題에關한 『日本外交文 書抄』	1898.1~ 1898.12			〃	〃	〃

자 료 내 용			자료 수록(간행) 도서			
자료명	생산년도	저 자 (발행처)	도 서 명	저 자 (간행자)	발간년도	비 고
東萊府誌	1740	東萊府	郷土文化 第二輯	釜山郷土 文化研究會	1970.2	活字本 (港都釜山 第一號와 同一本)
東萊府邑誌	1832 (1899)		邑誌 ①	亞細亞 文化社	1982	影印本
嶺南邑誌 〔東萊府事例〕	1895	議政府編	邑誌 ②	〃	〃	〃
嶺南邑誌 〔東萊, 釜山鎮 多大鎮, 西平鎮 金井山城事例〕	1895		邑誌 ③	〃	1987	〃
慶尙監營 啓錄	1863 ~1902	備邊司	各司膽錄 ⑪	國史編纂 委員會	1984.10	影印本
慶尙左水營 啓錄	1848.12 ~1865.7	〃	〃	〃	〃	〃
東萊府 啓錄	1849.6 ~1889.8	〃	各司膽錄 ⑫	〃	〃	〃
慶尙監營 關牒	1905.4 ~1907.5	備邊司	各司膽錄 ⑬	〃	1984	〃
東萊關牒 內案	1889.1 ~1890	東萊府 監理署	〃	〃	〃	〃

자 료 내 용			자료 수록(간행) 도서			
자료명	생산년도	저 자 (발행처)	도 서 명	저 자 (간행자)	발간년도	비 고
東萊關牒 外案	1889.1 ~1890.7	◇	◇	◇	◇	◇
慶尙左水營 關牒	1863.9 1866 ~1870	議政府	◇	◇	◇	◇
統制營關牒	1871 ~1891	議政府	◇	◇	◇	◇
慶尙道關草	1886.8~ 1895.10	◇	◇	◇	◇	◇
釜山港關草	1887.5 ~1893.1	統理文涉 通商事務 衙門	◇	◇	◇	◇
◇	1893~ 1895.10	議政府	◇	◇	◇	◇
東萊府築城 膽錄	1851	東萊府	◇	◇	◇	◇
東萊府接待 膽錄	1653 ~1841	◇	◇	◇	◇	◇
監董漁基 顯末膽錄	1828.6 ~1829.3	◇	◇	◇	◇	◇
東萊邊報 膽錄	1894.12 ~1895.7	◇	◇	◇	◇	◇
草梁客舍 重修膽錄	1825.3 ~1826.1	東萊府	◇	◇	◇	◇
禮房色來報 關錄	1892 ~1893	東萊府	◇	◇	◇	◇

자 료 내 용			자료 수록(간행) 도서			
자 료 명	생산년도	저 자 (발행처)	도 서 명	저 자 (간행자)	발간년도	비 고
刑 房 來 報 關 錄	1841 ~1891	東 萊 府	◇	◇	◇	◇
書 契 · 所 報 贍 錄	1874 ~1894	◇	◇	◇	◇	◇
萊 營 文 牒	1866 ~1867		各司贍錄 14	國史編纂 委員會	1985	◇
東 萊 港 報 牒	1896~ 1905	外 部 《編》	◇	◇	◇	◇
東 萊 港 案	1905~ 1907	議 政 府	◇	◇	◇	◇
東 萊 監 理 各 面 告 書	1899.7~ 1905.12	東 萊 監 理 署	◇	◇	◇	◇
東 萊 府 各 面 報 告 書	1908.2~ 1910.9	東 萊 府	◇	◇	◇	◇
慶 尙 南 北 道 各 郡 報 告	1900~ 1907	內 藏 院	各司贍錄 15	國史編纂 委員長	1985	影 印 本
慶 尙 南 北 道 來 去 案	1896~ 1909	外 部	◇	◇	◇	◇
外 部 各 道 來 去 案	1900	◇	◇	◇	◇	◇
東 萊 統 案	1883~ 1893	東 萊 監 理 署	各司贍錄 16	◇	◇	◇

자 료 내 용			자료 수록(간행) 도서			
자 료 명	생산년도	저 자 (발행처)	도 서 명	저 자 (간행자)	발간년도	비 고
慶尙南北道 各郡訴狀	1900~ 1907	內藏院	各司膽錄 ⑬	國史編纂 委員會	1985	影印本
觀 察 道 來 去 案	1910	東萊府	◇	◇	◇	◇
統制營啓錄	1847.1~ 1890.3	備邊司	各司膽錄 ⑰	◇	◇	◇
釜山港監理 衙門日錄	1888.5~ 1888.12.	釜山港 監理署	◇	◇	◇	◇
釜山港監理 署日錄	1889.1~ 1902.5	釜山港 監理署	◇	◇	◇	◇
◇	1904	◇	◇	◇	◇	◇
東萊監理 署日錄	1889~ 1905	東萊監理署	◇	◇	◇	◇
釜山府史稿 (1~6)	1933~ 1937	釜山府	釜山府 史原稿 (1~6)	民族文化	1986	影印本
釜山市 金石文			鄉土資料 叢書 ①	慶星大學校 鄉土文化 研究所	1984	活字本 (한글번역 주요사진수록)
釜山·慶南 鄉校記文			◇ ②	◇	1986	◇

자 료 내 용			자료 수록(간행) 도서			
자료명	생산년도	저 자 (발행처)	도 서 명	저 자 (간행자)	발간년도	비 고
東萊鄉廳 考往錄卷一 考往錄卷三	1605~1805 1681~1903 1782~1900		〃 ③	〃	1989	〃
述亭集 (附跋文)	1759(?)	河聖大	東萊史料 ①	東萊地方史 研究會(編)	1989	影印本
萊府日記	19세기말(?)	金 鈞	〃	〃	〃	〃
多大鎭 公文日記	1856.12.21 } 1858.3.22		〃	〃	〃	〃
別軍官廳 外先生案	18세기~ 19세기(?)		〃	〃	〃	〃
敎練廳 先生案	1765		〃	〃	〃	〃
作隊廳外 先生案			〃	〃	〃	〃
東萊府誌	1740	東萊府	東萊史料 ②	〃	〃	〃
東萊府邑誌	1759		〃	〃	〃	〃
〃	1832		〃	〃	〃	〃
東萊府邑誌 (事例大概)	1871		〃	〃	〃	〃

자 료 내 용			자료 수록(간행) 도서			
자료명	생산년도	저 자 (발행처)	도 서 명	저 자 (간행자)	발간년도	비 고
東萊府事例	1868	東萊府	〃	〃	〃	〃
嶺南鎮誌	1894.11) 1895.5	議政府	東萊史料 ③	〃	〃	〃
東萊 〔附事例〕	1894.11) 1895.5		〃 〃	〃 〃	〃 〃	〃 〃
東萊府邑誌	1899		〃	〃	〃	〃
釜山府誌	1937	鄭原稿	〃	〃	〃	〃
東萊郡〔誌〕	1937	〃	〃	〃	〃	〃
明倫學校 日史	1908) 1909		東萊史料 ④	東萊地方史 研究會(編)		여강 출판사 (영인)
開城學校 金受取錄	1896~ 1898		〃	〃	〃	〃
都總	1898~ 1900		〃	〃	〃	〃
上京日記 〔部〕	1898~ 1899		〃	〃	〃	〃

4. 맺 음 말

이상에서 부산의 지방사연구현황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보았다. 이는 서두에서 밝힌 지방사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그 대상을 부산시 자체의 노력과 부산지역 대학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하였다. 대체로 198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활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방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부산시는 그 동안 저조한 상태로 머물고 있던 지방사연구를 시사편찬회의 활동을 재개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자체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심으로 박물관과 연구소를 통하여 연구의 매듭을 풀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선사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물관들이 나름대로 연구성과를 축적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문헌학을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중분이후 각 대학의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연륜이 짧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우기 지방사에 대한 개별연구자의 활동은 미미한 상태이다. 이는 기존의 향토 학자들이 행한 연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없는 무관심의 연속이라던지, 부산지역 역사학자들의 모임인 부산사학회에서도 아직 가시적으로 부산의 지방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계기의 모색을 위한 노력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실에서도 너무나 명백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최근들어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한 젊은층 학자들을 중심으로 부산의 역사연구에 관한 관심과 함께 미약하나마 연구성과를 쌓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든 미약한 상태에 있는 부산의 지방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계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때만 최소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전문연구자들의 집단인

대학은 울타리를 높여 갈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城)을 열고 지역문화에 좀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비로소 부산의 지방사연구는 새로운 참 모습을 갖추어 갈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고의 작성에 자료를 협조에 주신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부록〉 부산시 각 구지(區誌) 발간 현황

순번	구 분	책 명	편(저)자	발간연도
1	중 구	중 구 지	부산직할시 중구	1991. 1
2	동 구	부 산 동 구 향 토 지	동구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1987. 4
3	부산진구	부 산 진 향 토 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1989. 12
4	남 구	부 산 남 구 향 토 지	남구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1985. 11
5	강 서 구	부 산 강 서 향 토 지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1988. 12
6	동 래 구	동 래 지	동래지편찬위원회	1982.
7	서 구	서 구 지	서구지발간추진위원회	1978. 12
			부산직할시 서구	1990. 12
8	북 구	북 구 지	북구지발간추진위원회	1980. 2
			부산직할시 북구	1991. 2
9	사 하 구	사 하 지	사하지발간추진위원회	1986. 12
10	금 정 구	금 정 구 지	부산직할시 금정구	1991. 2
11	해운대구	해 운 대 향 토 지	해운대구 번영회	1989. 6
12	영 도 구	절 영 지	절영지발간추진위원회	1983. 10